

동네방네

“신선한 농산물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고양시 산지 30분 거리 로컬푸드 매장

고양시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이 품질 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은 주차할 공간 없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구입하러 온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출하에 힘들어 하던 농가들도 더 좋은 품질을 직매장에 공급하기 위해 힘쓰는 등 활력을 되찾았다.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의 매출도 전년 대비 20%~30% 이상 신장돼 학



로컬푸드 농산물 직매장 /고양시

고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가들의 애로 사항이 적극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부터 대부분 30분~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싱싱한 농산물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연초록 물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인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 봄기운이 가득하다. 초록으로 물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 나들이객들에게 아름답고 싱그러움 담양의 봄을 선사하고 있다.

/뉴스

곡성군, '작은영화관' 활성화에 전 직원 동참

영화티켓사기 운동 추진

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작은영화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직원 영화티켓사기 운동에 나섰다.

2017년 12월 개관한 곡성 작은영화관은 2개의 상영관(1관 62석, 2관 33석)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3D 영화관람도 가능하다.

그동안 극장이 없어 최신 개봉작을

보기 어려웠던 농촌지역에 문화적 대비 같은 역할을 해왔다. 개관 2년 만인 지난해 12월말에는 누적 관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관 측은 7일 "주말이면 멀리 전북 남원에서 방문하는 등 하루 300~400명이 찾았고, 지난해 12월에는 7000명 가까이 입장해 80~90%의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었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 노후 가로·보안등 LED 교체 추진

사업비 25억 투자, 4500개 LED교체

영양군 전체 LED 가로·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대한민국 별천지 영양이 새롭게 밝아진다! 영양군은 노후된 가로·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영양군은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해 군 전체 4500여 개의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전남=김태우 기자 ktu3987@

Weather forecast for May 8th (Friday) with a map of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 and a bar chart for various weather indices.

안동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위해 산·학·연·관 맞손

강소·벤처·중견기업 220곳 육성

안동형 일자리 모델 발굴 보고회 일자리 창출 위한 안동선언문 채택 중소기업·지역특화사업 중심 모델 10년간 가용재원 10% 꾸준히 투입

안동시가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자리 쓰나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안동형 일자리모델 발굴에 나섰다.

안동시는 7일 오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안동형 일자리 모델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당선인과 18명의 안동시의회 의원, 지역 3개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북바이오연구원장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장, 시 간부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안동형 일자리사업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안동형 일자리 모델은 대기업과 제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지역특화사업 중심이 특징이다. 지역대학이 주도하고 지방정부 지원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중소도시형 모델이다.

지역 대학이 지역 고등학교, 지역기업 등과 협력해 맞춤형 핵심 인력 배출



안동시 3대문화권컨벤션센터 조감도

교육과 재교육, 평생교육 등 3중 교육 안전망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3개 대학과 상공회의소, 연구기관 등 7개 기관·단체 대표가 함께 '일자리 창출 위한 안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안동선언문에는 안동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본부 설치와 지역대학-중소기업 간 인턴십 확충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연구기관 간 장비공동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경연구원에서 발굴한 5대 미래전략 신산업 20개도 발표한다.

시에서는 안동형 일자리 창출을 위

한 특화와 실질적인 도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향후 10년간 가용재원의 10%정도를 꾸준히 투입해 창업과 기업혁신, 협력시스템을 구축, 2030년까지 핵심 인력 1만명, 지역특화 강소기업 100개, 청년벤처 100개, 중견기업 2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030년까지 인구 30만 명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강소기업 중심의 첨단 AI도시, 그린컬처벨리를 표방하는 국제적인 관광 글로벌 도시 구축이 목표이다"며 "안동형 일자리모델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탁월 일자리절벽·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문경시, 코로나 피해 시민 대상 지방세 감면

확진자·격리자·소상공인 등 대상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면제

문경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확진자 및 격리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정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그리고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확진자 소유 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확진자



문경시청

와 격리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확진자 경유로 인해 5일 이상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 선별진료소 설치병원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50만원 한도), 소상공인에

게 임대료를 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10(20만원 한도)을 각각 감면한다. 단, 별장,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경(경북)=장성우 기자 krhon@

경북도, '경북사랑 노랫말' 공모

코로나에 침체된 지역 분위기 쇄신

경북도가 '경북사랑 노랫말' 공모전을 연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 전반에 퍼진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경북에 대한 역동성과 미래 지향적인 희망을 갖고 즐겁게 애창할 수 있는 노랫말이면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노랫말에 들어가야 하는 문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구나 노랫말 길이 등 별도제한은 없다. 응모방법은 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양식에 맞춰 노랫말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광주테크노파크

15개 중소기업 선정

성장 잠재력과 매출이 우수한 광주 '스타 기업'이 추가로 선정됐다.

7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광주시와 테크노파크는 지역 15개 중소기업을 스타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에이엠특장, 현대하이텍, 에이치디티, 알텍, 비에이에너지, 베스텍, 신소재산업, 디알텍, 현대금속, 샌도리, 남양조명공업, 월드플러스전자, 은혜기업, 에스디엠, 창억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